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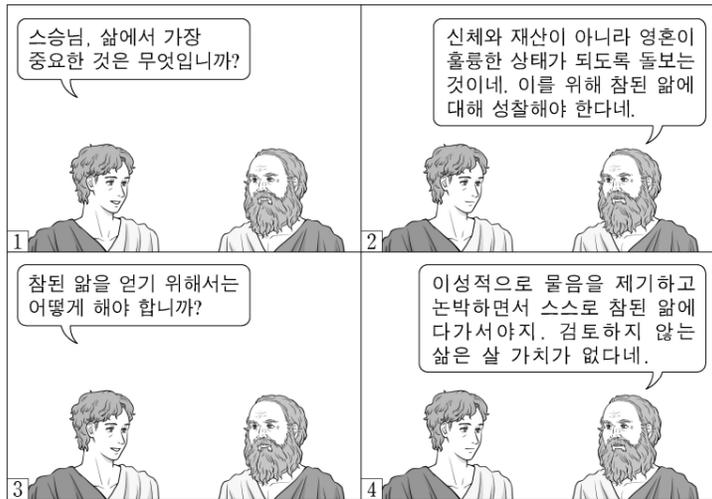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치적 명예에 필요한 수사학과 대화법을 공부해야 한다.
- ② 이성적 성찰보다 감각적 경험으로 진위를 분별해야 한다.
- ③ 마음의 평온을 위해 세속을 벗어나 자연에 은둔해야 한다.
- ④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⑤ 진리는 상대적임을 깨닫고 서로 다른 입장들을 존중해야 한다.

2. 고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정의란 지배하는 이들의 이익이다. 지배하는 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려고 한다. 강한 자가 권력을 행사하므로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익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을: 정의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각자 일에 충실하며 다른 계층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각 계층에 적합한 덕들이 국가 안에 보전된다. 정의는 각자 덕을 가지고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이다.

- ① 갑: 법은 통치자와 피치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 ② 갑: 정의는 특정 계층의 사익이 아니라 보편적 진리에 근거한다.
- ③ 을: 용기는 기개가 영혼을 지배함으로써 발휘되는 덕이다.
- ④ 을: 통치자는 지혜와 더불어 용기와 절제의 덕도 갖추어야 한다.
- ⑤ 갑과 을: 누가 통치하든 상관없이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다.

3. 고대 동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성인(聖人)은 무위(無爲)하니 백성들이 저절로 감화되고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들이 저절로 바르게 된다. 성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부유해지고 무욕(無欲)하니 백성들이 저절로 순박해진다.
 을: 어진 사람은 자기가 서고자 할 때 먼저 남을 세워 주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남의 바람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해 준다.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서(恕)는 인(仁)을 행하는 방법이다.

- ① 갑: 만물의 근원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표현할 수 없다.
- ② 갑: 도의 관점에서는 인간만이 절대적 가치와 자유를 지닌다.
- ③ 을: 직분에 따른 권한과 의무의 충실한 이행은 서와 상충한다.
- ④ 을: 군주는 재화 분배의 형평보다 재화의 부족을 근심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덕을 따라야 한다.

4.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인간이든 국가든 어떤 좋음(善)을 목적으로 추구한다. 어떤 것의 좋음은 그 기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기능은 자신의 고유한 덕에 따라 수행될 때 완성된다. 인간이 지닌 고유한 기능은 영혼의 이성적 활동이다. 인간의 좋음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며 최고의 좋음은 완전한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인간의 덕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악행은 무지가 아니라 언제나 자제력 없음에서 비롯된다.
- ② 인간의 좋음 중 자족적 좋음이자 완전한 좋음은 행복뿐이다.
- ③ 모든 덕은 본성적으로 생겨나지는 않지만 습관으로 완성된다.
- ④ 품성적 덕은 중용에 맞는 감정과 행위를 판별해 주는 앎이다.
- ⑤ 개인의 최고의 좋음과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일치하지 않는다.

5. 다음을 주장한 중국 불교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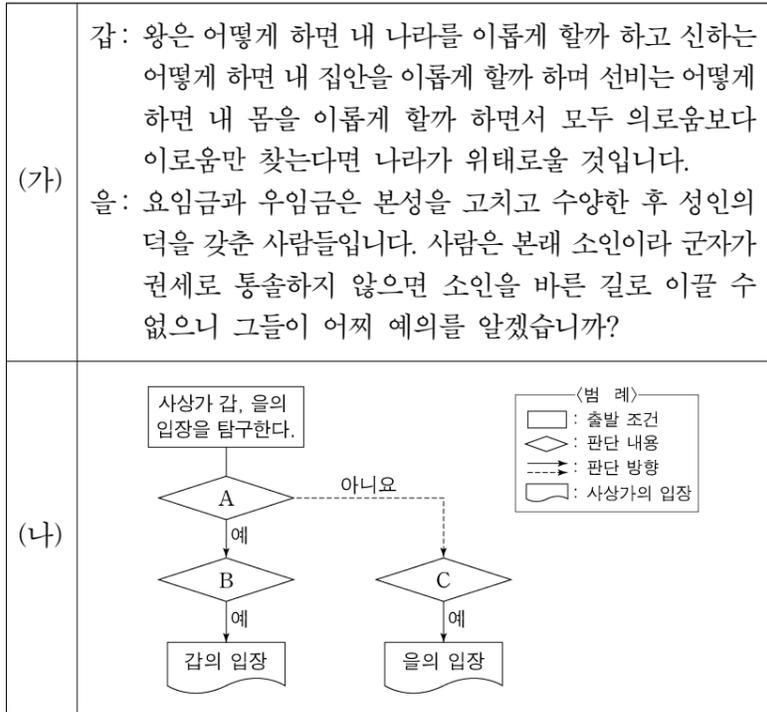
○ 사람은 본래 반야(般若)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나 마음이 미혹하여 깨닫지 못하므로 고승(高僧)의 인도로써 마음의 실상을 몸소 깨달아야 한다.
 ○ 부처는 자신의 본성 속에서 이루어지니 자신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것은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는 것이다.

- ① 깨달은 사람이 가는 곳인 정토(淨土)는 내 마음에 있다.
- ② 완성된 부처의 참된 모습을 본래적으로 갖춘 사람은 없다.
- ③ 단박에 깨우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행도 요구되지 않는다.
- ④ 깨달음은 마음으로 전할 수 없으니 반야의 지혜가 필요하다.
- ⑤ 경전 공부를 위주로 선(禪)을 병행해야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6.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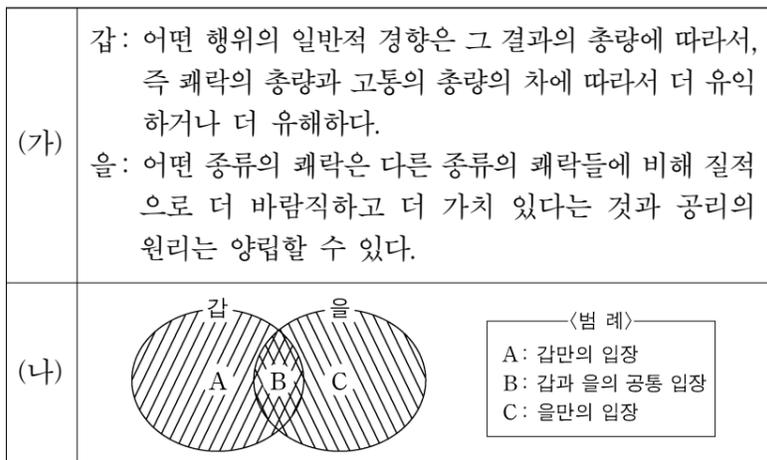


<보 기>

- ㄱ. A: 군자는 남의 고통을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을 타고나는가?
 ㄴ. B: 의로움의 추구와 이로움의 추구는 언제나 상충하는가?
 ㄷ. C: 제도적 규범에서 도덕 성립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
 ㄹ. C: 인(仁)을 군주의 기본적인 덕목으로 삼아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ㄱ. A: 행복은 쾌락의 양의 증가를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
 ㄴ. B: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나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
 ㄷ. B: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ㄹ. C: 저급한 쾌락은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한 쾌락이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 가상 편지를 쓴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사랑하는 ○○에게

네가 지난번 편지에서 질문한 인간의 도덕성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도덕성도 그들이 어떤 고정된 결과에 도달했는지 아니면 미치지 못했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방향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선했던 사람도 현재 타락하거나 선을 상실해 가고 있다면 악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무가치했던 사람도 현재 선해지기 시작한다면 선한 사람이다.

- ① 행복의 실현 여부가 행동의 목적이자 궁극적 가치 기준이다.
 ② 유용성이 입증된 도덕 규칙도 상황에 따라 가치를 상실한다.
 ③ 문제 해결을 위한 잠정적 가설은 지식의 근간이 될 수 없다.
 ④ 행위의 도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지속적 성품에 근거한다.
 ⑤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견해는 의미 있는 삶에 기여하지 않는다.

9.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절제란 자신을 완전히 신에게 바치는 사랑이며, 용기란 신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랑이며, 정의란 신에게만 헌신하는 사랑이며, 지혜란 신을 지향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랑이다.

을: 지성적 덕과 도덕적 덕은 우리 행위에 의해 획득되며, 우리 안에 있는 특정한 자연적 원리에 의해 발생한다. 자연적 원리 외에도 신이 우리에게 주신 종교적 덕에 힘입어 우리는 초자연적 목적을 향하게 된다.

- ① 갑: 인간은 이성만으로도 자신의 유한성을 초월할 수 있다.
 ② 갑: 죄악은 불변하는 선을 인간이 외면하는 데서 발생한다.
 ③ 을: 자연법은 영원하며 모든 피조물이 준수해야 할 법칙이다.
 ④ 을: 삶의 궁극 목적은 신 존재를 철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⑤ 갑과 을: 참된 행복은 신의 은총으로 현세에서 완성될 수 있다.

10.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효도와 공경을 행했을 때에 비로소 '효도할 줄 안다, 공경할 줄 안다'고 말할 수 있다. 효도와 공경의 뜻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효도할 줄 안다, 공경할 줄 안다'고 말할 수 없으니, 앎과 행위를 어떻게 분리하겠는가?

을: 이미 알고 있는 이치를 가지고 사물을 탐구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영특하여 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천하의 사물에는 모두 이치가 있으나 사람이 궁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앎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다.

- ① 사람의 마음에 천리(天理)가 존재하는가?
 ②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에도 이치가 내재하는가?
 ③ 소인은 선천적 도덕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인가?
 ④ 욕구의 절제와 본성의 보존은 격물(格物)과 무관한 것인가?
 ⑤ 치지(致知)는 사물에 깃든 이치를 궁구하고 실천하는 것인가?

11.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어머니 뱃속에 태아가 생기면, 형체가 없지만 신령스럽고 밝은 본체를 하늘이 부여해 주니, 이 때문에 사람의 성(性)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며 덕을 좋아하고 욕됨을 수치스럽게 여긴다. 사람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를 거슬러 악을 행한다면 어찌 그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보 기>
 ㄱ. 영지의 기호는 선을 지향할 수 있는 실체적 이치이다.
 ㄴ. 사람은 이법적(理法的) 도덕 본성이 없으나 덕을 행할 수 있다.
 ㄷ. 인간은 선을 택해 실천할 수 있는 주체적 능력을 타고난다.
 ㄹ. 예(禮)라는 성(性)은 사양지심이 발현되는 시초가 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도덕은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성에서 유래될 수 없다. 이성 홀로는 그와 같은 영향력을 전혀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성의 규칙은 결코 우리 이성의 결론이 아니다.
 을: 천성적으로 동정심을 잘 느끼는 이는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만족하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는 비록 의무에 맞다 하더라도 의무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면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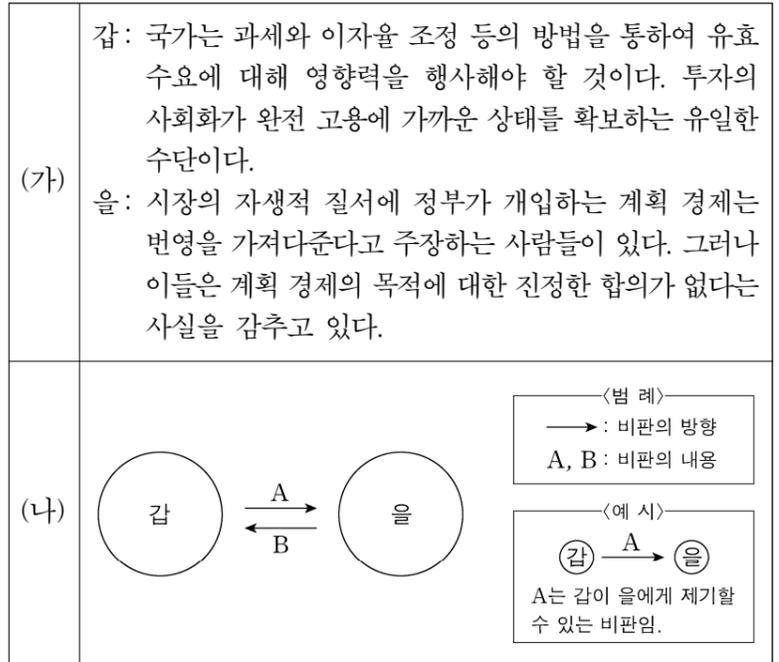
- ① 갑: 자신의 이익을 충족하는 행동은 선한 행동이 될 수 없다.
 ② 갑: 정념의 목적과 그 수단을 선정하는 데 이성은 무능력하다.
 ③ 을: 자유는 보편타당한 정언 명령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이다.
 ④ 을: 선의지는 제한 없이 선하지만 조건 없이 선한 것은 아니다.
 ⑤ 갑과 을: 보편적 인류애가 도덕 법칙을 수립하는 기초이다.

13.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한울님이 감응한다.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면[守心正氣] 천지를 내 마음에 가까이 하는 것이니 참된 마음은 한울님이 반드시 좋아하고 한울님이 반드시 즐거워한다.
 을: 강화(講和)가 성립되면 사교(邪教)의 서책과 천주(天主)의 초상이 섞여 들어와 온 나라에 퍼질 것이다. 이를 내버려 두면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아 예의는 시궁창에 빠지고 사람들은 금수가 될 것이다.

- ① 갑: 천인합일 사상을 극복하고 인간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② 갑: 새로운 세상이 내세(來世)에 열린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③ 을: 절의(節義) 정신을 바탕으로 신분 질서를 철폐해야 한다.
 ④ 을: 서양의 종교는 배척하되 물질문명[器]은 받아들여야 한다.
 ⑤ 갑과 을: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편안히 해야 한다.

14.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역할 확대가 필요함을 간과한다.
 ② A: 사적 소유와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에 필수적임을 간과한다.
 ③ B: 자유 경쟁으로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이 저하됨을 간과한다.
 ④ B: 계획 경제가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해 불가피함을 간과한다.
 ⑤ B: 자유방임주의는 개인과 사회의 이익 증진을 저해함을 간과한다.

15.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제거되면 육체적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단지 형태만 바뀔 뿐이다. 정신적 쾌락의 한계는 쾌락들에 대한 계산과 쾌락과 연관된 감정들에 대한 계산을 통해 알 수 있다.
 을: 자신을 지배하는 이성과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에게 신속히 달려가라. 네 이성에게 달려가는 것은 그 이성을 바르게 하기 위함이며, 우주의 이성에게 달려가는 것은 네가 무엇의 일부인지 상기하기 위함이다.

<보 기>
 ㄱ. 갑: 신과 운명에 대한 순응은 행복의 실현에 필수적이다.
 ㄴ. 갑: 정의는 상호 피해 방지를 통해 고통 제거에 기여한다.
 ㄷ. 을: 인간이 자연적 본성을 따르는 것은 이성에 어긋난다.
 ㄹ. 갑과 을: 자연에 대한 이해는 마음의 동요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하나는 기(氣)가 주가 되고 하나는 이(理)가 주가 되기 때문에 사단에도 기가 없지 않지만 이의 발(發)이라 하고, 칠정에도 이가 없지 않지만 기의 발이라 합니다.

을: 기가 유행하면서 그 본연을 잃고 치우치거나 혼탁한 것은 기의 국한됨이고, 기의 맑음과 혼탁함 가운데서도 그 본연이 손상되지 않음은 이의 통함입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7.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은 곧 자연이다. 신은 물리적인 것 혹은 정신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신을 완전하게 이해함으로써 완벽한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된다. 즉, 신에 대한 이해는 최고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준다. 완전한 행복은 신을 인식하는 데서 성립하며, 이를 통해 덕이 요구하는 것만을 행할 수 있다. 정신의 최고의 덕은 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 ① 외적 대상에 대한 이해는 언제나 감정적 동요로 귀결된다.
- ② 신은 무한한 실체이며 신의 산물인 인간은 유한한 실체이다.
- ③ 자연에 대한 지적 사랑 없이 완전한 자유 실현은 불가능하다.
- ④ 인간은 필연성을 벗어날 수 없지만 자유 의지는 가질 수 있다.
- ⑤ 모든 사물이 본질적으로 자기 존재 보존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18. 사회사상가 갑, 을의 이상사회에 대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농사는 모든 남녀가 예외 없이 종사하는 생업이다. 이들은 여섯 시간만을 일할 시간으로 배정한다.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외의 시간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을: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사회의 번영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노동자를 점점 자본가에게 의존하게 하고 더 심한 경쟁에 몰아넣으며 과잉 생산이라는 사냥터로 밀어 넣어 무기력한 상태에 빠뜨린다.

- ① 갑: 생산이 풍족하지 못하므로 모두 검소하게 살아간다.
- ② 갑: 필요 이상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여가 활동이 허용된다.
- ③ 을: 역사의 최종 단계로서 노동자 계급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 ④ 을: 노동자와 자본가가 협력하는 점진적 개혁으로 실현된다.
- ⑤ 갑과 을: 사적 소유가 폐지되고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진다.

19.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 좋아하는 존재인 인간이 국가 안에서 살기로 한 궁극적 목적은 자기 보존과 만족된 삶이다. 인간은 자연 상태의 비참한 전쟁 상태로부터 빠져 나오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는다.

을: 최고 권력은 구성원들의 재산을 동의 없이 취할 수 없다. 정부의 목적은 구성원들의 재산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사회 계약을 맺었기에 이러한 권리를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보 기>

㉠. 갑: 자연 상태에서는 욕구 충족을 위한 무력 행사가 가능하다.
 ㉡. 갑: 구성원들은 자발적 계약을 통해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된다.
 ㉢. 을: 재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사회 계약 이후 발생한다.
 ㉣. 갑과 을: 자연 상태에서도 양도 불가능한 개인의 권리가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20.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는 어떤 정부 형태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세 가지 기본적 자유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실천, 과학, 도덕, 신학 등 모든 주제에 대한 사상과 의견과 감정의 자유를 요구합니다. 둘째,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추구할 자유를 지녀야 합니다. 타인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으면서 자기 개성에 적합한 인생 계획을 설계하고, 초래될 결과를 감수하는 조건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뜻을 같이하는 타인들과 함께 화합할 연대의 자유를 지녀야 합니다.

- ① 개인의 자유 보호를 위해 국가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
- ② 개인적 삶의 기호는 다수의 선호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 ③ 개인의 자유는 민주 정부 아래에서는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 ④ 개인이 타인들과 사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는 없다.
- ⑤ 개인들의 화합을 위해서는 단일한 사상 체계를 추구해야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